형통회, 노인복지관에 800만원 상당 의류 기탁

형통회(회장 김근형)는 16일 광주시 북구 노인종합복지관에 800만원 상당의 남녀 방한용품을 전달했다. 〈사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도 노인복지시설에 후원의 발길이 끊긴다는 점에 주목해 마음을 담아 전달했다.

형통회는 광주아울렛 밀레 김근형 대표, 광주롯데수완아울렛 아크테릭스 이성구 점장과 박효준매니저, 디스커버리 이휴성 매니저, 무등산노스페이스 이도순 대표, 동광주웨스트우드 이정경 대표, 광주신세계백화점 아크테릭스 김용준매니저, 스노우피크 김형욱매니저 등 8명이 활동 중이다.

형통회는 10년 넘게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며 의미있는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여수 기관·단체들, 여수섬박람회 입장권 구매 약정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역 기관·단체들이 입장권 구매에 나섰다. 〈사진〉

여수 지역 수협, 수산단체, 수산물가공업체 등 11개 기관·단체는 지난 11일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와 1억 3000만원 규모의 섬 박람회 입장권 구매약정을 체결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입장권 2000만원 구매 약정을 체결했다.

항만공사는 지난 9월 여수시와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협약'에 따라 섬박람회 입장권을 구매, 지역 취약계층, 청소년, 지역 복지시설 등에 기부키로 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문석환 광주교통공사 사장 취임

광주교통공사 신임 CEO로 문석환(사진·67) 사장이 16일 취임했다.

문 사장은 이날 광주시 서구 마륵동 본사에서 취임식을 마친 후, 동구 용산차량기지로 이동해 도시철도 운영 현장을 점검하는 것으로 첫 업무를 개시했다.

문 사장은 용산차량기지 내의 정비고와 검사고를 비롯한 주요 시설물을 점검하고, 동절기 안전 관리 현황 등을 면밀히 살피며 강도 높은 안전 관리를 당부했다.

이날 문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는 일류 공기업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이동이 편리한 도시 광주,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교통공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국립광주과학관, 관람객 800만 돌파 축하행사

국립광주과학관은 16일 800만 번째 관람객을 맞아 축하행사를 개최했다. 〈사진〉

800만 번째 관람객의 주인공이 된 광영고등학교 김예서 학생(1학년)은 "초등생 때 처음 광주과학관을 방문한 이후 오늘이 세 번째 방문인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깊이 과학의 재미를 느끼고 이해하게 된다"며 "많은 사람을 돕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장래희망은 임상병리사"소감을 전했다.

이날 800만 번째 관람객에게는 과학동아 1년 구독권과 우주를 주제로 한 브릭 기념품이 전해졌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산구·남부대, 중독관리지원센터 위수탁 계약

광주 광산구와 남부대학교산학협력단은 최근 광산구보건소 보건소장실에서 중독 예방 및 치료 활동을 위해 광산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사진〉

광산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 사회의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중독자 가족 지원사업, 취약지구 정신건강관리사업 등을 추진한다.

광산구은 이번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용산문화재단 초대이사장에 '팝페라 테너' 임형주 선임

세계적인 팝페라 테너 임형주(사진·39)가 용산문화재단 초대 이사장을 맡는다.

임기는 내년부터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임형주는 가장 어린 나이로 서울 자치구 문화재단 이사장에 임명된 사례라고 디지엔콤은 설명했다.

용산문화재단은 용산구의 지역 문화정책 전담기관으로 지역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지역 문화정책을 수립하는 등의 업무를 맡는다.

1998년 독집음반으로 데뷔한 임형주는 '천개의 바람이 되어', '행복하길 바래' 등 27년간 다수 대표곡을 내며 '팝페라 선구자'로 불렸다. 2003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식에서 최연소로 애국가를 독창해 주목받았으며, 뉴욕 카네기홀 공연과 나루히토 일왕 초청 무대 등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미국 그래미 시상식 심사위원 겸 투표인단으로 활동 중이며 이탈리아 로마 시립예술대학 성악과 석좌교수도 맡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유튜브 3000만 뷰 돌파

TV프로그램 1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5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홀릭(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7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굿모닝 대한민국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50 생생정보 스페셜	50 첫 번째 남자(재)	40 닥터 365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30 친밀한 리플리(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영상앨범 산 30 국회 과방위 쿠팡 사태 청문회	1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인간극장 스페셜	45 뽀뽀뽀 좋아좋아 스페셜	30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
11		10 슈퍼맨이 돌아왔다(재)	15 찾아가는 꾸러기교실 45 팬티히어로2	
12	00 KBS 뉴스 12	30 개는 훌륭하다(재)	00 12 MBC 뉴스 25 첫 번째 남자(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45 위시캣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지명수배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재)	05 안녕! 틴틴팅클(재) 25 헬로키즈 TV생물도감2(재) 55 2시 뉴스 외전	00 보석이네 건강 수다
2	00 KBS 뉴스 10 팔도밥상 스페셜(재) 30 국회 과방위 쿠팡 사태 청문회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타임 15 월드 24 45 린다의 신기한 여행 2(재)	55 기분 좋은 날(재)	00 네모세모(재)
4	00 사사건건	00 TV 유치원(재) 30 영상앨범 산(재)	55 5시 뉴스와 경제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이맘때	00 Why? 15 강치 아일랜드 30 꿀잼 영화가 좋다	10 PD수첩(재)	00 SBS 오뉴스 30 캐리와 친구들(재)
6	00 6시 내고향	00 경제콘서트 35 2TV 생생정보	05 빛나는 나의 도시	00 생방송 투데이 50 KBC뉴스와이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그 후 100일 작별하지 않는다	50 친밀한 리플리	05 첫 번째 남자 40 MBC 뉴스데스크	45 닥터 365 50 SBS 8 뉴스
8	30 마리와 별난 아빠들	30 슈퍼맨이 돌아왔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50 러브 : 트랙	00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재)	00 키스는 괜히 해서!
10	00 특집 다큐 다시 서다, 더 미라클 50 KBS 뉴스라인W		30 라디오스타	20 틈만나면(재)
11	30 이슈 픽 쌤과 함께 스페셜	05 말자쇼(재)		
12	00 KBS 중계석 〈이든 콰르텟 리사이틀〉	05 아이 러브 스포츠 30 꿀잼 영화가 좋다(재)	15 MBC 뉴스 25 35 웰컴 투 스포츠	10 닥터 365 20 휴먼다큐 나눔 스페셜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클래스 e
05:50 한국기행
06:10 세계테마기행 〈당신을 자유롭게 하리라, 키르기스스탄 -국경의 남쪽, 페르가나〉
07:00 꼬마마법사 주니토니
07:15 무지개 강아지 딜런의 모험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나의 비밀친구 해치
08:00 딩동댕 딩동댕
08:20 수상한 방송국
08:50 메탈카드봇S 강철의 귀환
09:20 미리 가본 대학
09:40 글로벌 특선 다큐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 12
12:10 왔다! 내 손주(재)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14:30 나의 두 번째 교과서
15:10 고향민국
15:40 마샤와 곰
15:55 블록스
16:10 딩동댕 딩동댕
16:30 수상한 방송국(재)
17:00 페파 피그
17:10 도토리 문화센터
17:40 티시태시와 춤추고 노래해요!
17:50 똘비와 하잇희의 직장습격
18:10 EBS 뉴스
18:30 취미는 과학 여행(재)
19:20 고향민국
19: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20:40 세계테마기행 〈살아 있네, 동남아 알짜 여행 -바다 향 가득, 베트남 남부〉
21:35 한국기행 〈오늘도 나답게 삽니다 3부 스님이 지리산으로 간 까닭은?〉
21:55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22:45 PD로그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17일(음 10월 28일 庚申)

☎ 010-9790-8237

子 36년생 짜임새 있게 관리해야 할 판국이니라. 48년생 처음에는 난감할 것이나 점차 자리를 잡는다. 60년생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낫다. 72년생 외형적인 기교보다 내부적인 효용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84년생 기회를 만나면 즉시 잡아야만 취할 수 있는 법이다. 96년생 촌음을 아껴 써도 하루 해가 너무 짧도다. 행운의 숫자 : 21, 99

丑 37년생 자신감을 갖고 확실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도다. 49년생 효용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점에 놓여있다. 61년생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느니라. 73년생 역경은 경험으로써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니라. 85년생 방법에 따라서 의미의 차이가 크다. 97년생 그동안 품어 왔던 뜻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행운의 숫자 : 23, 74

寅 38년생 번복될 수도 있는 구도여서 실망하기에 충분한 마당이다. 50년생 진면모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재앙을 피해갈 수 있다. 62년생 곁가지를 무시하고 주된 것에 몰입하라. 74년생 성심을 다 한다면 무난할 것이다. 86년생 기본적인 이치에 따르는 것이 순탄하다. 98년생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해결의 기미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60, 89

卯 39년생 상대의 기대 심리를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 51년생 쉽게 보고 덤벼든다면 큰일 나게 되어 있다. 63년생 곧 요긴하게 쓸 때가 돌아 올 것이니 잘 챙겨 둬라. 75년생 남의 일에 나서면 무조건 손해이다. 87년생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백번 나을 것이다. 99년생 마음이 끌리어 쉽게 빠져들기에 충분하다. 행운의 숫자 : 15, 77

辰 40년생 불가피한 인연으로 영향력하에 놓인다. 52년생 조짐이 보이거든 확실히 조처해야만 훗날의 악재를 원천 봉쇄하게된다. 64년생 인과응보의 원리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76년생 쌓아온 공로가 자신의 입으로 무너질까 걱정된다. 88년생 판세를 좌우하는 이변이 분명히 보인다. 00년생 예전과 별 반 차이가 없다. 행운의 숫자 : 24, 57

巳 41년생 가장 근본적인 것을 잘 살펴봐라. 53년생 희망 사항이 현실화될 것이니 기대해 볼 만하다. 65년생 일장일단이 있어서 확실히 마음을 정하지 못한다. 77년생 편견에 사로잡힌다면 나쁜 상황이 된다. 89년생 사소한 것은 차치하고 큰 가닥에 따라야 할 것이다. 01년생 드디어 학수고대해오던 결단의 시기가 되었느니라. 행운의 숫자 : 01, 59

午 42년생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들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54년생 상대의 진의를 파악하기 힘들 것이다. 66년생 안배와 활용을 잘해야 하겠다. 78년생 중요한 사항이 언급될 것이니 만전을 기해야 하느니라. 90년생 노력 앞에서는 그 어떠한 화도 비켜갈 것이다. 02년생 가급적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30, 61

未 43년생 기왕 시작했으면 끝을 보는 것이 옳다. 55년생 절제할 수 있어야 무탈하다. 67년생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79년생 큰일을 꿈꾸다가 눈앞의 현실을 망각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만 할 것이다. 91년생 차이가 많이 날 것이니 충분히 감안해야겠다. 03년생 희망해 왔던 바대로 척척 맞아 떨어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6, 88

申 44년생 낌새를 무시하지 말고 저변을 돌아보는 것이 기반을 튼튼히 하리라. 56년생 초여름의 소나기와 같은 기복이 보인다. 68년생 평상시에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야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활용하는 효과가 있다. 80년생 심심하지는 않겠다. 92년생 여유를 갖고 신중히 처리하라. 04년생 파격적인 사례가 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33, 96

酉 45년생 자신이 마음먹었던 대로 진행해도 지장이 없겠다. 57년생 작은 배가 큰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에 비유할 만하도다. 69년생 돌발적인 변수의 상황까지 예견해야 하느니라. 81년생 잘 되어 있으니 뚜껑만 열면 된다. 93년생 열과 성을 다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05년생 혼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로다. 행운의 숫자 : 42, 94

戌 46년생 교체해 주어야만 새로운 국면을 열어 갈 수 있다. 58년생 기존에 있어 왔던 것이니 다루기가 용이 하겠다. 70년생 공전에 단 한번도 접하지 못하였던 특이한 양상이 비친다. 82년생 절대로 무리가 따르지 않아야만 한다. 94년생 제대로 중심을 잡아야 문제가 수습될 것이다. 06년생 다양한 가능성의 장들이 열리리라. 행운의 숫자 : 13, 78

亥 47년생 충동적인 판단이었다면 재고해 볼 여지가 있다. 59년생 복잡다단한 국량이니 부지런히 챙겨야 제대로 돌아갈 것이다. 71년생 정황 파악에 빈틈이 없어야만 할 것이다. 83년생 지켜보고 있노라면 한계가 드러날 것이다. 95년생 잡다함을 차치해야만 길조를 상승시킨다. 07년생 기조는 불변하겠지만 규모가 커지리라. 행운의 숫자 : 10, 98